

「서울, 1964년 겨울」의 화용론적 담화 구조와 소외의 문체 연구 제4층위의 담화 붕괴와 그 서사적 전이를 중심으로

DOI <https://doi.org/10.30525/978-9934-26-700-0-7>

김 지 혜,

교육학 박사, 조교수,

아시아중동어문학부, 글러벌한국어학전공,

서울, 대한민국

Email: kimjh@mju.ac.kr

ORCID <https://orcid.org/0000-0001-5762-6555>

국문초록. 본 연구는 김승옥의 소설 서울, 1964년 겨울에 나타나는 소외와 단절의 양상이 인물 간의 대화 및 서술자의 발화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조화되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본고는 작품 속 인물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관계 양상에 주목하고, 그러한 거리감이 단순한 내용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서사 구조와 문체 전반에 걸쳐 조직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채트먼의 서사 구조 모델을 바탕으로 작품의 담화 층위를 구분하고, 각 층위에서 나타나는 발화 전략과 의미 생성 방식을 화용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우선 4층위에 해당하는 인물 간 대화를 분석한 결과, 등장인물들은 대화의 협력 원리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며 상호 소통에 실패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들은 질문에 직접 응답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감정 표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타인과의 관계 맺기를 유예한다. 이러한 대화 방식은 그라이스의 대화 격률 위반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동시에 브라운과 레빈슨의 체면 이론에서 말하는 체면 방어 전략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등장인물들은 자신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노출하지 않기 위해 우회적 표현과 침묵, 농담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인물 사이의 정서적 거리감을 심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4층위의 대화 전략은 3층위의 서술 문체와도 구조적 동형성을 이룬다. 작품의 서술자는 대상과 사건을 직접적으로 의미화하기보다 환유적 방식으로 제시하며, 단편적 이미지와 건조한 묘사를 통해 인물과 세계 사이의 거리감을 형성한다. 특히 인물의 감정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외적 행위나 주변 풍경을 병치하는 서술 방식은 독자로 하여금 정서적 공백과 불안감을 체감하게 만든다. 이러한 환유적 거리두기 문체는 인물 간 단절을 재현하는 동시에, 1960년대 도시 공간 속 개인의 고립된 감각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한다. 다시 말해 작품의 소위 의식은 단지 서사 내용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서술의 표현 방식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담화 구조는 2층위의 내포 작가가 당대의 시대적 감수성을 언어적으로 조직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1960년대의 서울은 인간관계의 해체와 익명성을 심화시키는 공간으로 작동하며, 작품은 이를 인물의 발화 방식과 서술 전략 속에 내면화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 1964년 겨울의 문체는 단순한 표현 기법이 아니라 시대적 불안과 실존적 고독을 재현하는 미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내용 중심 해석에서 나아가 화용론적 담화 분석과 서사 구조 이론을 결합함으로써 작품의 문체와 의미 생성 과정을 입체적으로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대화 격률과 체면 이론을 문학 텍스트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화용론적 접근이 현대소설 문체 연구에 유효한 방법론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데 연구적 가치가 있다.

주제어: 「서울, 1964년 겨울」, 문체론, 화용론적 담화 분석, 서사 층위, 대화 격률, 체면 이론.

**PRAGMATIC DISCOURSE STRUCTURE
AND THE STYLISTICS OF ALIENATION
IN “SEOUL, WINTER 1964” FOCUSING
ON THE COLLAPSE OF THE FOURTH NARRATIVE
LEVEL AND ITS TRANSFERENCE ACROSS
DISCOURSE LAYERS**

DOI <https://doi.org/10.30525/978-9934-26-700-0-7>

Jeehye Kim,

Ph.D., Assistant Professor;

Global Korean Language Studies, Division of Asian and Middle

Eastern Languages and Literature, College of Humanities;

Head of the Department of Global Korean Language Studies,

College of International Studies;

Deputy Director, 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Myongji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Email: kimjh@mju.ac.kr

ORCID <https://orcid.org/0000-0001-5762-6555>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alienation and disconnection are structured within the characters' dialogues and the narrator's utterances in Kim Seung-ok's "Seoul, 1964, Winter." To this end, the study applies Chatman's narrative structure model, examining the characters' dialogues (Level 4) and the narrator's utterances (Level 3) through pragmatic and semiotic methodologies.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intentional flouting of maxims and face-saving strategies embodied in the Level 4 dialogues form a structural homology with the metonymic distancing style implemented at Level 3. This demonstrates how the implied author (Level 2) materializes the sensibility of the era directly into the language.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in confirming the potential of pragmatic discourse analysis in the stylistic study of novels.*

Keywords: *"Seoul, 1964, Winter", Stylistics, Pragmatic Discourse Analysis, Narrative Levels, Conversational Maxims, Face Theory.*

I. 서론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은¹ 발표 이후 한국 현대소설사에서 도시적 소외와 인간 단절을 형상화한 문제작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 간의 비평과 연구는 이 텍스트가 생산하는 정서적 충격의 근원을 1960년대 근대화 담론, 지식인의 실존적 위기, 감수성의 혁명이라 불 리는 새로운 언어 감각 등의 거시적 맥락에서 찾아왔다.² 그 결과, 이 작품이 당대의 '소외'와 '무의미'를 탁월하게 형상화한 문학이라는 점에는 폭넓은 학문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는 텍스트의 주제를 확인하는 데는 유효하되, 그 주제가 구체적으로 어 떠한 언어적 메커니즘을 통해 생성되고 구축되는가 하는 물음에는 충분한 답을 제공하지 못한다. 본고는 바로 이 지점을 연구의 출발점 으로 삼는다.

「서울 1964년 겨울」을 포함한 김승옥 소설의 언어적 특성에 대한 기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축적되어 왔다. 첫째, 사회시학 및 다성성 담론 계열이다. 최인자(1999)는 바흐친의 사회시학적 관점 을 도입하여 문체 분석의 기본 단위를 문장에서 발화(utterance)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법론적 전제를 제시하고, 도시 대중의 일상 언어 가 소설 문체로 수용·변용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서은혜(2018)는 이 성과를 이어받아 지배 담론의 언술이 대화적 담론성으로 재맥락 화되는 과정을 규명하였다. 이 연구들은 발화를 분석의 전면에 세움 으로써 이후 연구들의 중요한 좌표를 마련한다.

둘째, 문체 유형론 및 실존주의적 주체 탐구 계열이다. 김혜련(1995)은 슈넬트와 슈탄젤의 서사 이론을 적용하여 화자의 자기변론 적 의도가 서술 기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담론 분석을 통한 문 체 비평의 가능성을 실증하였다. 장석원(2005)과 이병현(2009)은 각 각 상동성 개념과 텍스트 언어학의 좌표 체계를 통해 반복·열거·절제 와 발산 등 김승옥 소설 문체의 유형적 특질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였 으며, 김태조(2011)는 들뢰즈의 타자 개념을 통해 인물들의 아포리아 적 붕괴 양상을 서사 구성 원리로

¹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무진기행』, 더클래식, 2013, 78~106쪽. (초간본: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사상계』, 동국사, 1965년 6월호).

² 이와 관련된 비평 및 연구로는 유종호, 『감수성의 혁명, 비순수의 선언』, 민음사, 1995, 424~430쪽; 김현, 「구원의 문학과 개인주의」, 『사회와 윤리』, 일지사, 1974, 383~402쪽; 김명석, 『김승옥 소설의 감수성과 일상성』, 푸른사상, 2004 등이 있음.

읽어냈고, 박진영(2014)은 문학주 체론의 시각에서 비정체적 감수성과 양가적 내면 형식을 해명하였다. 이 계열의 연구들은 이 작품의 언어적 자질을 섬세하게 포착하여 해석의 층위를 다각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처럼 선행연구는 발화를 분석 단위로 설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사회·이데올로기적 맥락 해석과 문체 유형의 귀납적 기술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풍부한 성과를 쌓아왔다. 그러나 이 훌륭한 연구사적 토대 위에서도, 발화 내부에서 작동하는 미시적이고 화용론적인 역학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구체적으로 인 물들의 개별 대화 안에서 상호 소통의 협력 원리가 어떤 방식으로 위 배되는지, 그리고 그 위배가 화자의 어떠한 대인 관계적 방어 동기에서 비롯되는지를 텍스트 내적으로 판별하는 실증적 작업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본고는 채트먼(Chatman, 한용환 역, 2006, p. 307)이 제시한 서사의 4층위 모델을 분석의 거시적 조직 원리로 삼는다. 이 모델은 서사 텍스트의 소통을 실제 작가의 발화에 해당하는 1층위, 내포 작가의 발화 분석이 가능한 2층위, 서술자 발 화 분석이 이루어지는 3층위, 등장인물의 발화 분석이 가능한 4층위 로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 방식은 소설 언어의 다층적 성격을 인정하 면서도 특정 층위에서 그 발화가 갖는 특징을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 도록 한다는 점에서 소설의 언어 분석 및 문체 연구에 유용하다.

본고의 분석은 인물 간 발화가 이루어지는 제4층위에서 출발하여 상위 층위로 전이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금까지의 소설 문체 연구는 거시적 이데올로기 구조에서 미 시적 언어 자질로 내려오는 방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연구는 발화 단위의 미시 분석에서 출발하여 서사 층위의 거시 구조 를 향해 올라가는 상향식 전이의 방법론을 취할 것이다. 이는 이 소설의 거시적 주제가 인물들 사이의 미시적인 대화 파탄과 체면 방어 기제가 누적된 결과로서 텍스트 전체의 서술 문체로 전이되어 가는 역동적인 발생 과정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 는 그라이스(Grice, 1975)의 대화 격률 이론과 고프만(Goffman, 1967)의 체면 이론, 그리고 야콥슨(Jakopson, 1956)의 언어 기능 모 델을 활용할 것이다. 그라이스(Grice, 위의 책)는 개별 발화의 전략을 분석하는 실증적 도구이며, 고프만(Goffman, 위의 책)은 그 위반의 심리적·대인 관계적 동기를 해석하는 틀로 기능한다. 야콥슨 (Jakopson, 위의

책)의 두 축은 이러한 대화 파탄의 인식론적 배경을 보조한다. 이제 가지 이론의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본 논문에서의 적용 위계에 대해서는 2장에서 상세히 논의하겠다.

II. 문학 텍스트의 화용론적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

1. 채트먼의 서사 소통 모델과 층위 구분

채트먼(Chatman, 한용환 역, 위의 책, p. 307)은 서사 텍스트 안에 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층위를 네 단계로 구분한다. 제1층위는 실제 작가(real author)와 실제 독자(real reader) 사이의 소통으로, 텍스트 바깥에 위치한다. 제2층위는 내포 작가(implied author)와 내포 독자(implied reader) 사이의 소통으로, 텍스트 전체를 조직하는 이념적·미학적 원리가 작동한다. 제3층위는 서술자(narrator)와 수화자(narratee)³ 사이의 소통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목소리와 그 목소리가 향하는 텍스트 내부 수신자가 관계를 맺는다. 제4층위는 인물과 인물 사이의 발화 교환, 곧 스토리 층위의 소통을 의미한다. 이 논문의 분석은 제4층위의 화용론적 미시 분석에서 출발한다.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에서 제4층위는 '나', '안', '사내'라는 세 인물 사이에서 교환되는 일상 발화들로 구성된다. 제3층위는 1인칭 서술자 '나'가 사건을 회고적으로 재구성하는 서술 문체에 해당하며, 제2층위는 그 서술을 통해 소외와 단절의 메타적 담론을 구성하는 내포 작가의 층위에 해당한다. 주목할 점은 이 소설이 1인칭 관찰자 겸 주인공 시점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4층위에서 대화에 참여하는 인물 '나'와 제3층위에서 세계를 진술하는 서술자 '나'는 동일 주체이며 작품 속에서 유기적으로 겹쳐 있다. 이러한 특수성은 제4층위에서 발생한 대화의 파탄과 심리적 방어 기제가 제3층위의 서술적 문체로 전이되는 과정을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다.⁴

이 논문이 채트먼(Chatman, 한용환 역, 앞의 책, p.307)의 모델을 텍스트 분석의 조직 원리로 채택한 핵심적인 이유는 각

³ 서사 텍스트 내부에서 서술자의 이야기를 수신하는 대상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제럴드 프린스(Gerald Prince)가 실제 독자나 내포 독자와 구별되는 텍스트 내적 수신자의 존재를 규명하기 위해 개념화하였으며, 이후 채트먼(Chatman, 위의 책, p. 294)이 서사 소통의 구조 모델로 적극 수용하여 제3층위의 핵심 요소로 정립하였다.

⁴ 한편, 논의의 초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제 층위, 곧 실제 작가 김승옥의 전기적 맥락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층위 간에 이 루어지는 전이의 역동성을 설명하기에 이 모델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제4층위의 발화 분석에서 출발하여 제3층위의 서술 문제, 나아가 제2층위의 메타 담론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상향적 전이 방식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상향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인물 발화의 화용론적 특성이 텍스트의 구조와 서술 층위를 거쳐 최 종적인 서사 담론을 형상화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으며, 채트먼의 모델은 이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론적 선택에 해당한다. 실제 4층위와 3층위의 구체적 분석 내용과 그것이 2층 위의 메타 담론을 완성하는 방식에 대한 해석은 각각 3장과 4장에서 살펴보겠다.

2. 그라이스 · 고프만 · 야콥슨을 통한 통합 분석 틀

이 절에서 다루는 세 가지 이론은 본 논문의 분석에서 각기 다른 층위의 기능적 역할을 분담한다. 그라이스(Grice, 앞의 책)의 협력 원리는 인물 발화에서 '무엇이 위배되었는가' 하는 현상을 판별하는 데 활용하고, 고프만(Goffman, 앞의 책)의 체면 이론은 '왜 그 위배가 발생했는가' 하는 원인 분석에 활용한다. 나아가 야콥슨(Jakobson, 앞의 책)의 기호학적 두 축(은유 · 환유)은 보조적으로 도입하여 '어떠 한 인식론적 틀에서 발화하였는가'를 추적하는 도구로 활용할 것이다.

그라이스(Grice, 앞의 책, pp.41-58)는 대화 참여자들이 공통의 목적을 향해 협력한다는 협력 원리(Cooperative Principle)를 전제하고, 이를 실현하는 네 격률인 양(Quantity), 질(Quality), 관련성(Relation), 방식(Manner)에 따라 제시했다. 이 논문에서 핵심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의도적 위반(flouting)'과 '은밀한 위반(violation)'이다. '의도적 위반'은 화자가 내놓고 격률을 어겼다고 판정되는 경우로, 청자는 자신이 격률을 위배하는지 알면서도 어떤 의미와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이렇게 수행되는 말이 포함된 대화는 함축된 의미가 있고, 이는 분석 대상이 된다. '은밀한 위반'은 함축을 생성하려는 의도 없이 감정적 요인 등으로 인해 발화가 통제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협력 원리의 위반은 이 소설의 텍스트 분석에서 결정적 의미를 지닌다. 가령, '사내'의 과잉진술은 청자가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 서 시행되는 의도적 위반인 동시에, 압도적인 슬픔으로 인한 발화 통제 실패라는 점에서 은밀한 위반이기도 하다. 반면, '안'의

반응은 일 관되게 치밀한 의도적 위반의 양상을 보이며, 그 함의는 감정적 전이로부터의 심리적 자기방어로 분석된다. 즉, 이 구분은 인물의 발화 동기를 근거로 언어적 선택과 배열을 분석하게 하며, 소설의 문체와 비평적 의미 사이의 입체적 구조를 살필 수 있게 한다.

고프만(Goffman, 앞의 책, pp. 5-45)은 체면(face)을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 개인이 고수하려고 하는 공적인 자아 이미지로 정의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상호작용 의례(interaction ritual)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는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위 논문에서 제시한 개념을 논문을 기본 틀로 삼되, 텍스트의 미시적 발화 분석을 위해 브라운과 레빈슨(Brown & Levinson, 1987)이 이 를 언어학적으로 구체화한 분석 개념을 차용한다.⁵ 즉, 타인에게 인 정받고자 하는 적극적 체면(Positive Face), 타인의 간섭을 피하려는 소극적 체면(Negative Face), 그리고 이를 훼손하는 체면 위협 행위 (Face Threatening Act, FTA) 개념을 분석 기제로 활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본고는 '예의 바른 무관심(civil inattention)' 개념을 심 리·언어적 방어 기제로 확장하여, 격률 위반의 대인 관계적 동기를 해석에 활용한다. 이 개념을 적용한 분석들은 협력의 원리에 대한 '안'의 의도적 위반은 무엇을 위한 것이며, '사내'의 과잉 진술은 무엇을 위한 행동이었는지를 규명할 수 있게 돕기 때문이다.

한편, 야콥슨(Jakobson, 앞의 책)은 언어 기능을 은유와 환유의 두 축으로 기술한바 있다. 환유(metonymy)는 인접성(contiguity)에 기 반한 의미 연쇄로, 사물 A가 사물 B와 맥락적으로 인접하기 때문에

B를 환기하는 방식이다. 은유(metaphor)는 유사성(similarity)에 기 반한 의미 도약으로, 사물 A가 사물 B와 닮았기 때문에 B를 환기하 는 방식이다. 이 연구는 위 연구의 두 축을 야콥슨의 두 축을 인물들 이 서로 다른 인식 양식 위에서 발화하고 있음을 보이는 인식론적 배 경 설명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면 인물

⁵ 고프만(Goffman, 1967)이 자아의 공적 이미지와 상호작용 의례로서의 '체면'을 거시적 으로 개념화했다면, 브라운과 레빈슨(Brown & Levinson, 1987)은 이를 언어적 상호작 용 상황에 맞춰 정교화하였다. 본 논문은 인물 간의 상호작용과 방어적 기제라는 거시적 주제를 다루기 위해 고프만(Goffman, 앞의 책)을 중심에 두되, 실제 발화 문장의 화용론 적 분석 도구로 이를 다룰 때에는 브라운과 레빈슨(Brown & Levinson, 앞의 책)이 발전 및 정교화한 개념을 차용·결합하는 방법을 취한다.

대화가 어떤 인식론 적 축에 따라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소통 불가능성의 연 원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결과를 미리 제시하자면 서술자 '나'의 발화는 환유 축이 지배적인 반면, '안'의 특정 발화는 은유 축이 개입된 인식의 도약이 지배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차이가 소설의 서사 적 의미에 미치는 영향은 3장과 4장에서 논증한다.

Ⅲ. <서울, 1965년 겨울>의 제3·4층위 담화 분석 1. 선술집 장면: 인접 쌍의 표면적 유지와 인식 축의 엇갈림

선술집 장면은 제3층위 서술자 '나'의 다음 문장을 통해 제4층위

담화 출발의 조건을 명시한다.

자기소개는 끝났지만 그리고 나서는 서로 할 얘기가 없었다.
잠시 동

안은 조용히 술만 마셨는데…… (79)

“서로 할 얘기가 없었다”는 서술은 소통 부재를 뜻하는 메타적 진 술이다. 그러나 이 침묵 이후에 전개되는 발화 연쇄는 차례 교대

(turn-taking)의 형식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다. 선술집 장면에서 나 오는 발화들 가운데 선행 발화부(First Pair Part, 이하 FPP)와 후행 발화부(Second Pair Part, 이하 SPP)의 차례 교대가 단절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발화 교환의 형식적 층위에서 인접 쌍(adjacency pairs)은 완전히 작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분석 결과, 이 장면의 SPP가 FPP의 명제에 실질적으로 응답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이 담화가 비대칭적인 구조를 가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접 쌍의 형식적 유지와 내용적 공백의 공존은 '파리'에

대한 대화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난다.

“안 형,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 “아니오, 아직까진…….”
그가 말했다. “김형은 파리를 사랑하세요?” / “예”라고 나는 대답했다. “날 수 있으니 까요. 아닙니다. 날 수 있는 것으로서 동시에 내 손에 붙잡힐 수 있는 것이니까요. 날 수 있는 것으로서 손 안에 잡아본 것이 있으세요?” (79)

그라이스(Grice, 앞의 책)의 관점에 따라 분석하면 이 대화는 '관 련성의 격률'과 '방식의 격률'에 대한 의도적 위반으로

점철되어 있다. '파리'라는 맥락 없는 화제를 제시하고 그에 모호하게 답변하는 맥락은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대화의 협력 원리를 파괴하고 있으며 이는 그 자체로 주체간의 단절을 함축한다. 그러나 이를 고프만(Goffman, 앞의 책)의 관점에서 다시 본다면, 두 인물은 비상식적인 질문에도 진지하게 응답하며 발언권을 교환하는 등, 서로의 체면(face)을 보호하려는 상호작용 의례(interaction ritual)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미망은 붕괴되었지만 대화라는 형식은 매끄럽게 작동하는, 극단적인 형태의 '예의 바른 무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한편, 야콥슨(Jakobson, 앞의 책)의 기호학적 축을 비추어 보면, 4층위 화자이자 3층위의 서술자인 '나'가 화두로 제시한 '파리'는 이 시대의 비극을 엮어내고 있다. 선택과 유사성의 축에서 파리는 "날 수 있으나 손에 잡히는" 존재, 즉 근대적 자유를 환상으로만 소유했을 뿐 거대한 사회 구조 앞에서 언제든 바스러질 수 있는 무기력한 소시민의 환유한다. 한편, 결합과 인접성의 축에서 파리는 1964년 서울의 빈곤하고 불결한 풍경을 환기하는 동시에 '사랑'이라는 숭고한 감정과 결합되어 정상적 가치관이 전도된 시대의 허무주의를 은유한다. 즉, 제4층위에서 발생한 화용론적 소통의 부조리는 서술자인 '나'의 기호학적 묘사와 결합하면서, 파리로 대변되는 소외된 실존이라는 제3층위의 서사적 담화로 자연스럽게 전이되고 있다. 이어지는 "꿈틀거림"에 대한 대화에서도 이 구조는 관찰된다.

"꿈틀거리는 것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들어보세 요. 그 친구와 나는 출근 시간의 만원 버스 속을 스리꾼들처럼 안으로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젊은 여자 앞에 섭니다. 나는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나서, 달려오느라고 좀 멍해진 머리를 올리고 있는 손에 기대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앉아 있는 여자의 아랫배 쪽으로 천천히 시선을 보냅니다. 그러면 처음엔 얼른 눈에 뜨이지 않지만 시간이 조금 가고 내시선이 투명해지면서부터 나는 그 여자의 아랫배가 조용히 오르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1)

"어떤 꿈틀거림이 아닙니다. 그냥 꿈틀거리는 거죠. 그냥 말입니다. 예를 들면 ……데모도 ……." / "데모가? 데모를? 그러니까 데모……." / "서울은 모든 욕망의 집결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모르겠습니다." 라고 나는 할 수 있는 한 깨끗한 음성을 지어서 대답했다. (83)

위 장면에서 '나' 와 '안' 은 “꿈틀거림”이라는 기표를 공유하고 있으나, 상이한 인식론적 축에 따라 이를 사유한다. '나' 는 신체 감각의 인접 조건을 따라 오르내림, 호흡, 내적 생명 현상으로 수렴하는 '환 유적 연쇄' 를 수행한다. 하지만 '안' 은 꿈틀거림과 '데모' 사이의 유 사성을 발견하고 외부 사회로 비약하는 은유적 도약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각 인물의 발화 내적 구조만 보면 앞의 발화 와 뒤의 발화 사이의 논리적 연결이 성립하여 나름의 관련성이 확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라이스의 화용론적 층위에서 이 둘의 대화를 고찰하자면, 두 사람의 발화 사이에는 엇갈린 함축을 조율할 공유된 추론 기반이 없다. 격률의 '의도적 위반' 은 청자가 대화 함축 을 추론할 것을 화자가 기대할 때 성립한다.(Grice, 앞의 책, p.49) 두 인물은 상대방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의도적 위반을 수행하여 함축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하지만 '나' 의 발화와 '안' 의 발화 는 그 인식 축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공유된 함축을 생성하지 못하고, 이는 소설적 의미에서 '단절' 로 형상화된다. 즉, '꿈틀거림' 에 대한 이 대화는 제4층위의 인물이 '관련성의 격률' 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모습을 재현함으로써 '단절' 이라는 서사적 의미를 성취하고 있다.

이를 다시 고프만(Goffman, 앞의 책)의 체면 이론에 이를 비추어 보면, 이 문제가 단순히 소통능력의 부재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와 '안' 은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자신의 내면을 직접 노출하는 체면 위협 행위(FTA)의 부 담을 피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자신이 말하고자 하 는 바를 추론해주기를 바라는 '방어적 접촉 전략' 을 구사하고 있다. 접촉은 시도하되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이 치밀한 방어 기제는, 이 두 사람이 대화를 지속하면서도 의미적 소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구현해 낸다. 그리고 이는 단절과 고독이라는 소설적 의미와 연결된다.

요컨대, 선술집 담화는 형식과 의미 층위에서 상이한 구조를 보인다. 형식 층위에서는 담화의 인접 쌍 유지되지만, 의미 층위에서는 그 내용이 연결되지 않는다. 이 비대칭적 구조는 선술집 담화 전체를 관통하는 것으로 현대인의 고독감이라는 의미 형상화에 기여한다.

2. 중국집과 거리 장면: 양의 격률 비대칭과 과잉 진술의 고독

중국집 장면에서는 '사내'라는 제3의 인물이 담화에 참여하여 대화 참여자들 사이의 긴장이 질적 변화를 겪는다. 선술집에서 '나'와 '안' 사이에서 수평적으로 교환되었던 의도적 위반의 구조는, 과잉 진술을 하는 '사내'와 짧은 대답과 반응을 보여주는 '나/안' 사이의 수직적 비대칭으로 전환한다. 즉, '사내'의 등장 이후 발생하는 발화량의 비 대칭은 담화 구조 붕괴를 가속하는 결정적 원인이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말하기 시작 했다.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낮에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젠 슬프지도 않다는 얼 굴로 우리를 뵈히 쳐다보며 말하고 있었다. “네에에.” “그거 안되셨군 요.” 라고 안과 나는 각각 조의를 표했다. “아내와 나는 참 재미있게 살 았습니다. 아내가 어린애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은 몽땅 우리 두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돈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돈이 생기면 우리는 어디든지 같이 다니면서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딸기철엔 수원에 도 가고, 포도철에 안양에도 가고, 여름이면 대천에도 가고, 가을엔 경 주에도 가보고, 밤엔 영화 구경, 쇼 구경하러 열심히 극장에 쫓아다니 기도 했습니다…….” (92)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사내의 발화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와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는 후속 발화의 비밀상성을 예고하는 메타 발화적 프레임을 구성 하며, 청자에게 “이 화자는 왜 이러한 전체를 놓고 말하는가”를 추론 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관련성의 격률'에 대한 의도적 위반이다. 그러나 '사내'의 충격적인 선언에 대한 '안'과 '나'의 응답은 각각 “네 에에.”와 “그거 안 되셨군요.”라는 형식적 조의(弔意) 표현일 뿐이다. 사내가 제공한 정보량과 정서적 호소에 비교해 볼 때, 이 둘의 응답 은 실질적인 공감의 내용을 결여한, 일종의 '수신 확인의 신호'에 지 나지 않는다. 특히 사내가 “뵈히 쳐다보며” 응답을 기대하고 있다는 서술 맥락을 고려해 본다면, '안'과 '나'는 의례적 형식을 통해 이를 외면하는 방어적 거부를 실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해 진다.

'나'와 '안'의 반응은 매우 냉담했으나, '사내'는 그들에게 아내와의 추억을 상세하게 서술한다. 초면이라는 맥락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 내'의 발화는 '양의 격률'에 대한 의도적 위반이다. 하지만 '사내'는 이를 공공연하게 수행하고,

대화의 격률을 공공연하게 어기는 것은 화자의 의도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고려해 보면 이 발화는 청 자에게 자신의 고통을 알아 달라고 하는 함의를 생성함을 분석할 수 있다. 즉, '사내'의 발화는 그가 자신의 체면 손상(Face-loss)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타인의 공감을 얻어내야만 하는 실존적 절박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즉, 그는 고립의 공포로 체면 관리 능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이는 과잉 진술이라는 화용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난 서적 외판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돈 사천 원을 주더군요. 난 두 분을 만나기 얼마 전까지도 세브란스 병원 울타리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누워 있을 시체실이 있는 건물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타리 곁에 앉아서 병원의 큰 굴뚝에서 나오는 희끄무레한 연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해부 실습하느라고 톱으로 머리를 가르고 칼로 배를 찢고 한하는데 정말 그러겠지요?” /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환이 다쿠양과 양파가 담긴 접시를 갖다 놓고 나갔다. / “기분 나쁜 애길 해서 미안합니다. 다만 누구에게라도 얘기하지 않고서는 건딜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의논해 보고 싶은데,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저녁에 다 써버리고 싶은데요.” / “쓰십시오.” 안이 얼른 대답했다. (93~94)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 '사내'는 청자에게 자신의 말을 쏟아낸다. 지속적인 양의 격률에의 의도적 위반 행위는 청자가 자신에게 공감하길 바라는 마음을 함의하며 수신 행위를 강제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안'의 응답은 “쓰십시오.”라는 한 어절이다. '사내'의 발화에 비하면 매우 짧고 단순한 이 대답에는 의례적인 공감의 표현이나 상투적인 위로 표현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안'은 '저는 ... 싶은데요'로부터 '사내'의 의중을 확인하자마자 대답했다. '안'의 이 대답을 고 프만(Goffman, 앞의 책)에 비추어 보면 타인의 감정적 침범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소극적 체면(Negative) 보호 전략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안'의 이런 전략에도 불구하고 사내는 계속 요청한다.

“이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함께 있어 주시겠어요?”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함께 있어 주십시오.”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승낙했다. / “멋있게 한번 써 봅시다.” 라고

사내는 우리와 만난 후 처음으로 웃으면서, 그러나 여전히 힘없는 음성으로 말했다. (94)

첫 번째 발화에서 사내는 '함께 있어 달라'는 요청에 "이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라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는 금전의 소진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나'와 '안'의 승낙을 유도하고자 한 것이지만, '나'와 '안'은 그에 응답하지 못한다. 그러자 그는 '함께 있어 달라'는 요청을 거듭한다. 이는 '사내'가 체면 전략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두 번째 요청에 '우리는 승낙'했다. 하지만 그것은 '사내'의 불 안정한 심리를 안정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멋있게 한번 써 봅시다'라고 말하는 사내의 목소리가 '여전히 힘없는 음성'이었기 때 문이다. 이는 이들의 담화의 균형이 깨져 있음을 의미한다.

담화의 비대칭성은 거리 장면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이제 어디로 갈까?" 하고 아저씨가 말했다./ "어디로 갈까?" 안이 말 하고,/ "어디로 갈까?" 라고 나도 그들의 말을 흉내 냈다. (95)

'안'과 '나'는 사내의 말에 대답하는 대신 그것을 반복하거나 '흉내'낸다. 이는 화제를 전진시키는 어떠한 내용도 산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의 격률'에 대한 위반이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발화 방식이 제4층위에서는 취기와 방어라는 인물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제3층 위에서는 소외된 현대인의 정체된 실존을 형상화하는 문체적 장치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아내는 굴을 좋아했다"는 '사내'의 발화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은 굴 가게 앞이라는 물리적인 상황이 사내의 기억을 자극 하여 발화된 것으로, 인접성 기반의 환유 연쇄 (metonymic chain)라고 할 수 있다 (Jakobson, 앞의 책, pp.109-110). 이는 직전의 화제였던 '어디로 갈까'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관련성의 격률에 대한 의도적 위반이며, 그 함의는 아내에 대한 억눌린 그리움의 표출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즉, '사내'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다. 이런 '사내'의 태도는 '안'의 자기 방어 전략을 심화시킨다.

"화재 같은 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내일 아침 신문에서 볼 것을 오늘 밤에 미리 봤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저 화재는 김 형의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이 아저씨 것도 아닙니다." (97)

소방차를 따라왔으면서도 불의 의미를 부정하는 '안'의 발화는 '관련성의 격률'에 대한 의도적 위반이다. 그런데 이 위반은 어떤 합의의 추론을 유도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소방차를 따라 오자고 한 사람은 '사내'인데, '안'은 그 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냉정한 태도로 평가 절하한다. 이는 "나는 이 상황에 공감하지 않겠다"는 거부를 드러내며, 그때의 '이 상황'은 '불'일 뿐만 아니라 '사내'의 행동과 결정을 포함한다. 즉, 이 발화를 통해 '안'은 '사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말은 '안'의 체면 보호 전략이 점점 후퇴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앞에서 "쓰십시오"를 말할 때 그는 단 한 어절로 감정적 응답을 차단하면서도 그 의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했다. 하지만 화재에 대한 위의 발화를 보면 '안'은 스스로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거부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즉, 그의 인내심은 서서히 바닥이 나고, '사내'의 고통은 내 것이 아니라 는 입장이 외재화된 지경에 이르렀음이 형상화된 것이다.

요컨대 중국집과 거리에서 확인되는 '사내'와 '안'의 담화는 감정에 복받친 과잉 진술과 이에 대한 방어적 태도 사이의 비대칭성을 보여준다. 고통과 슬픔으로 의도적인 격률 위반을 하는 '사내'와, 그의 고통에 전이되지 않으려는 '안'의 소극적 체면 보호 전략 사이에서 이들의 담화는 붕괴하기 직전까지 이른다.

3. 여관 장면: 체면 붕괴와 서사적 담화의 종결

중국집과 거리 장면에서 '사내'에 대한 '나'와 '안'의 입장은 명시적 언어로 표현되지 못한 채 유예되었다. 여관 장면에서는 그 체면 의례가 해체되고 각자의 입장이 전면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각 방 배정 과정과 "역시"를 통한 고백, 그리고 "우리가 너무 늙어 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라는 실존적 자조를 통해 단계적으로 형상화된다.

"방을 한 사람씩 따로 잡을까요?" 여관에 들어갔을 때 안이 우리에게 게 말했다./ "그게 좋겠지요?" / "모두 한방에 드는 게 좋겠어요." 라고 나는 아저씨를 생각해서 말했다./ 아저씨는 그저 우리 처분만 바란다는 듯한 태도로, 또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른다는 태도로 멍하니 서 있었다. 여관에 들어서자 우리는 모든 프로가 끝나 버린 극장에서 나오는 때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북스럽기만 했다. 여관에 비한다면 거리가

우리에게 더 좋았던 셈이었다. 벽으로 나누어진 방 들,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었다. / “모두 같은 방에 들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내가 다시 말했다./ “난 아주 피곤합니다.” 안 이 말했다. “방은 각각 하나씩 차지하고 자기로 하지요.” /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 라고 아저씨가 중얼거렸다./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안이 말했다. (103~104)

여관에 도착하여 각자 방을 따로 잡는 과정은 앞에서 분석한 화재 발화 이후 노골화된 화용론적 방어 기제와 연속선상에 있다. '안'은 “방을 한 사람씩 따로 잡을까요?” 했는데, 이는 질문 형식을 띄고 있는 제안으로, 직접 제안이 초래할 수 있는 체면 위협 행위(FTA)를 피 하기 위해 '안'의 전략적 발화라고 할 수 있다. '안'은 “그게 좋겠지 요?”라는 부가의문문으로 청자의 동의를 확정하려고 했는데, 이 발화 또한 긍정적 체면 위협에 대한 사전 방어이자, 동의를 압박하는 '강요된 일치(Forced consensus)'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양의 격률과 태도의 격률에 대한 의도적 위반이기도 하다.

'나'는 사내를 염려하여 동숙(同宿)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안'은 “난 아주 피곤합니다”라는 말로 이를 차단한다. '안'의 문장은 표면 적으로는 육체적 피로를 진술하고 있으므로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 문장의 실질적 의미는 '상대방의 제안에 대한 거부'이다. 이러한 화법은 어떤 상황에서 자 신의 감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주 활용되는 소극 적 체면 보호 전략의 일환이다. 결국 '나'도 '안'을 따라서,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대화의 협력 원리를 파기한다.

이에 대해 '사내'는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라고 응답하는데, 이 역시 '안'의 발화와 유사한 종류의 '간접 화행(indirect speech act)'으로, 나를 혼자 두지 말아 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안'은 이에 대하여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라고 응답하며 사 내의 동반 요청을 거부한다. 상대의 의중을 알면서도 '혼자가 편할 것'이라고 규정하며 상대방을 압도하는 '안'의 발화는, 질의 격률에 대한 의도적 위반이다. 그는 '사내'의 간접 화행을 이해했으면서도 문면적 의미로만 수용하고, 이를 다시 자신의 목적에 따라 '편의'로 재구성함으로써, 각방 배정에 대한 의지를 관철해 냈다.

소통의 불협화음은 제3층위에서 진술된 '나'의 말을 통해 기호학적 으로 심화된다. 2장에서 언급했듯이, 이 소설은 1인칭

시점이므로 제 3층위의 화자인 서술자의 말이 대화 참여자인 '나'의 내면적 상념을 대리한다. 여관에 들어가며 서술자는 '모든 프로가 끝나버린 극장에 서 나오는 때'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음을 고백하고 '여관에 비한다면 거리가' 더 좋았다고 생각한다. 밤거리에서의 사건들이 지닌 피상적 면모와 허구적 특징을 극장의 프로그램에 비유한 것이다. 또, '안'이 각방을 제안하자 그곳이 '벽으로 나누어진' 상태임을 생각하는데, 이는 다만 방이 벽으로 나누어졌음을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물들 간의 심리적 단절을 환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장면에서 '나'의 서술은 밤의 시간 동안 버려진 서늘한 감각이 기호의 선택과 결합을 거쳐 표현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사내의 자살을 발견한 '안'과 '나'가 나누는 대화 장면은 화

용론적 기만과 체면 복구, 그리고 죄의식의 환유를 보여준다.

“그 양반 역시 죽어 버렸습니다.” 안이 내 귀에 입을 대고 그렇게 속 사였다./ “예?” 나는 잠이 깨끗이 깨어 버렸다./ “방금 그 방에 들어가 보았는데 역시 죽어 버렸습니다.” / “역시……” 나는 말했다.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 “아직까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선 빨리 도 망해 버리는 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사실이지요?” / “물론 그렇겠죠.” / 나는 급하게 옷을 주워 입었다. 개미 한 마리가 방바닥을 내 발이 있는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그 개미가 내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얼른 자리를 옮겨 디디었다. 밖의 이른 아침에는 싸락눈이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빠른 걸음으로 여관에서 떨어져 왔다./ “난 그가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시다.” 안이 말했다./ “난 짐작도 못했습니다.” 라고 나는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난 짐작하고 있었습시다.” 그는 코트의 깃을 세우며 말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 “그렇지요. 할 수 없지요. 난 짐작도 못 했는데…….” 내가 말했다./ “짐작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내게 물었다./ “씨팔것, 어떻게 합니까? 그 양반 우리더러 어떡하라는 건지…….” / “그러게 말입니다. 혼자 놓아두면 죽지 않을 줄 알았습시다. 그게 내가 생각해 본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 “난 그 양반이 죽으리라는 짐작도 못 했으니까요. 씨팔것, 약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모양이군요.” (104-105)

'안'의 첫 발화에 포함된 부사 “역시”는 선행 사태와의 일치 혹은 예측 가능성을 전제한다. 그러나 '안'은 자신이

언제부터 사내의 죽음을 예측했는지, 왜 침묵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생략하여 '양의 격률'을 위반했다. “예?”라는 나의 반응에 이어 말한 “방금 그 방에 들어가 보았는데 역시 죽어 버렸습니다”는 '안'이 '사내'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과 이미 그의 죽음을 확인했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때 사용된 보조동사 '-버리다'는 '사내'의 죽음에 대한 '안'의 정서적 거리감을 표시하는 동시에 '죽음'이라는 사건을 건조하게 전달하게 만드는데, 이는 '방식의 격률'에 대한 위반으로서 '안'이 자신의 도덕적 책임을 차단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어지는 두 사람의 대화는 도덕적 파산으로 손상된 자아를 수습하려는 '체면 복구(Face-saving)'의 시도이자 '정정 과정'이다 (Goffman, 앞의 책, p.13). 안은 사내의 죽음알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을 밝힌 앞의 발화로 인하여 기만적 태도와 도덕적 파산의 위기를 마주하게 되었으나, 곧이어 “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라는 문장을 통해 '알고 있었'음을 '짐작'으로 완화하고 자신의 무력감을 표명한다. 이는 손상된 자신의 체면을 부분적으로 회복하려는 정교한 전략이다. 이어서 그는 자신이 한 행동이 “생각한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말하는데, 이는 과도한 수식이라는 점에서 '양의 격률'에 대한 위반이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아마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여 체면을 유지하고자 했기 때 문이다. 그러나 그는 양의 격률을 위반함으로써 함의를 생성했고, 이로 인하여 말의 신뢰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안'의 말을 분석적으로 인지할 여유가 없다. 그 자신도 '사내'의 죽음으로부터 올 수 있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짐작도 못 했다”는 말을 하기 바쁘다. 이에 그는 '안'이 보여주는 여러 허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논리에 동조하게 되는데, 이는 두 인물이 모두 경찰 조사라는 치명적인 체면 위협 행위(FTA)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점에서 공모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서술자인 '나'는 내면의 죄책감과 관계의 비열함에 대한 서늘한 감정을 진술하며, 이는 '개미'와 '싸락눈'을 통해 형상화된다.

소설의 결말부에 제시된 이별 담화는 채트먼(Chatman, 한용환 역, 앞의 책)의 제4층위에서 발생한 담화 붕괴가 어떻게 전체 서사에 대한 의미를 형성하는지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다.

“김 형, 우리는 분명히 스물다섯 살짜리죠?” / “난 분명히 그렇습니다.” / “나도 그건 분명합니다.” 그는 고개를 한번

기웃했다./ “두려워 집니다.” / “뭐가요?” 내가 물었다./ “그
뭔가가, 그러니까...” 그가 한 숨 같은 음성으로 말했다. “우리가
너무 늙어 버린 것 같지 않습니 까?” / “우린 이제 겨우 스물다섯
살입니다.” 나는 말했다./ “하여튼...” 하고 그가 내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자, 여기서 헤어집시다. 재미 많 이 보세요.”
하고 나도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105~106)

고프만(Goffman, 앞의 책)의 관점에서 보면 이 장면은 부정적
체 면 보호 전략이 무너지고, 누적된 방어 기제의 피로가 노출되는
지점 이다. 냉혹하고 방어적인 지식인의 모습을 보이며 상황을
통제하려 했던 ‘안’은 “두려워 집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자신의 내적 감정 상태 를 표출하였다. 이어진 발화의 ‘너무
늙어 버린 것’은 신체적 노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선술집에서부터 여관까지, 스스로를 보 호하기 위해 수행해 온
타자 배척과 방어적 체면 관리 전략에 대한 피로도, 즉 ‘감정
능력의 철저한 소진 상태’를 함의한다.

안의 고백에 대해 ‘나’는 “우린 이제 겨우 스물다섯
살입니다”라고 응답하는데, 이때 부사 ‘겨우’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문면적 의미에 대한 응답으로서 젊음을
강조하는 말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가 ‘
안’의 질문의 뜻을 알면서도 ‘관련성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그 함의를 강화하는 말, 즉 ‘물리적으로 스물
다섯이지만 내면은 돌이킬 수 없이 늙어 버린 상태’라는 역설적
의미를 지닌 말로 해석할 수도 있다. 후자로 해석한다면 이들 의
대화는 이들의 대화는 의도적 격률 위반을 통한 자조이자 실질적
인 담화 붕괴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인사 장면에서 ‘안’은 “하여튼...”이라는 미완결
발화와 함 께 손을 내밀고, ‘나’는 “자, 여기서 헤어집시다.
재미 많이 보세요.”라고 응답하며 그 손을 잡는다. 이 발화는 제4
층위 담화의 실질적 종 결 지점이다. 제4층위 인물 발화의 차원에서
보면, ‘나’는 상대의 손 을 잡으며 작별의 의례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발화는 그 의례의 언 어적 형식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이 발화가 놓인 자리를 주목해야 한 다. ‘안’의 “하여튼...”은
선행하는 모든 발화를 단 한 어절로 봉인했

다. 이는 발화를 미완결 상태로 종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양의 격률 착취이다. 이 봉인의 직후에 “재미 많이 보세요”
가 배치된다. 내포 작가는 사내의 죽음을 “하여튼”으로 처리한
담화의 바로 다음 자리 에 ‘재미’라는 표현을 위치시킴으로써,

인물 스스로는 자각하지 못하는 구조적 공백을 독자의 층위에서 노출한다. 채트먼의 모델에 따르면, 제4층위의 인물은 자신의 발화가 어떤 문맥 위에 놓여 있는지를 의식하지 못한다. 내포 작가의 설계는 바로 그 무자각의 구조 자체를 텍스트 표면에 새긴다. 즉, “재미 많이 보세요”가 생성하는 공허함은 내포 작가의 배치로부터 온다. 이 발화는 그렇게 제4층위 담화를 중 결하는 동시에, 제2층위의 메타적 담론이 가장 압축적으로 수행되는 지점이 된다

IV. 방어적 담화의 층위 간 전이와 소외의 서사적 형상화

지금까지 이 연구에서는 「서울 1964년 겨울」의 제4층위 담화가 선 술집 장면에서 여관 장면까지 일관된 방어적 담화 전략으로 직조되어 있음을 분석하였다. 선술집 장면에서 ‘나’와 ‘안’은 인접 쌍의 형 식적 완결성을 유지하면서도 공유된 함축을 전면 회피했으며, 중국집 과 거리 장면에서는 사내의 절박한 과잉 진술과 두 청자의 단답이 수 직적 정보량의 비대칭을 구성했다. 여관 장면에서는 간접 화행의 무 력화를 통한 각방 배정, “역시”라는 부사를 통한 사후 고백, 그리고 “우리가 너무 늙어 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라는 실존적 자조를 통해 방어적 담화 전략이 파국적 단절로 귀결되는 양상을 확인했다. 주목 할 점은 이러한 전략들이 단순히 제4층위 인물 발화의 영역에만 머 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되는 이 서사의 특성 상 4층위의 대화 참여자인 ‘나’는 3층위의 서술자와 동일한 주체이다. 그런데 서술자인 ‘나’의 문체를 분석해 보면 인물·사건·상황의 내 면적 의미와 감정을 그를 환유하는 사물·행위·상태의 나열로 대체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대표적 사례는 <표 2>와 같다.

이 환유적 서술 전략이 가장 전형적으로 수행된 곳은 중국집에서

거리로 나선 직후의 묘사이다.

“중국집에서 거리로 나왔을 때는 우리는 모두 취해 있었고, 돈은 천 원이 없어졌고, 사내는 한쪽 눈으로는 울고 다른 쪽 눈으로는 웃고 있 었고, 나는 ‘악센트 짙는 문체를 모두 틀려 버렸단 말야’ 라고 중얼거리 고 있었고, 거리는……소주 광고는 부지런히, 약 광고는 게으름을 피우 며 반짝이고 있었고……”

표 2 서술자 '나'의 문체 유형: 환유적 거리두기

장소	원문 구절 (예시)	패턴	거리두기 효과
선술집	오텡과 군참새와 세 가지 종류의 술 등을 ...	사물 나열형	분위기나 내면 서술 없이 인접 사물 열거로 전달, 초기부터 환유 문체 확립
선술집	흙물은 우리의 발밑에서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다. 쇠가죽으로 지어진 내 검정 구두는 ...	상태 연쇄형	기온 변화와 감각만 나열, 정서의 은유화 도약 없음
선술집	도수 높은 안경을 쓴 안(安)이라는 대학원생과 ... 가난뱅이라는 것만은 분명하여...	속성 나열형	외적 속성으로 인물 규정, 인물 내면 심리 생략
중국집 후	취해 있었고, 돈은 ... 었고, 사내는 ... 었고, 나는 ... 었고, 거리는 ...	병렬 나열형	인물 상태 · 도시 풍경을 동등한 층위에 병치, 긴장을 무감각하게 나열
여관	할 수 있는 한 빠른 걸음으로	행위	죽음으로부터의 도주를
후	여관에서 떨어져 갔다.	서술형	물리적 행위로만 서술, 죄책감 · 공포 · 슬픔의 생략

' ~있고'를 통해 서술자는 인물의 심리 상태, 도시의 풍경, 상업 광고 등을 문법적으로 동등한 자리에 위치시킨다. '사내는 한쪽 눈으로 는 울고 다른 쪽 눈으로는 웃고 있었고'라는 말은 그의 절박함을 드러내는 만큼 생명의 긴장을 함축하지만, 제3층위의 서술자는 이를 나의 중얼거림과 거리의 광고들을 병치시킴으로써 무력화한다. 네온사인 광고의 명멸이 인물의 생사가 걸린 비극과 동일한 문법적 무게를 획득하는 이 서술은 '사내'로부터 느꼈을 수 있고 느꼈어야 할 감정을 사물에 대한 환유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거리두기를 수행하는 면모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위와 같은 제3층위의 문체 전략은 제4층위에서 '나'와 '안'이 사내의 감정적 발화에 짧게 대답하며 상호작용적 연루를 차단했던 부정적 체면 보호 전략과 구조적 동형(homology)을 이룬다. 제4층위의 인물들이 의도적 격률 위반과 체면 방어를 통해 타인의 세계로 진입하기를 거부했다면, 제3층위의 서술자 '나'는 환유적 사물의 나열을 통해 사건의 윤리적 의미망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해낸다. 그런 의미에서 결말부 서술인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빠른 걸음으로 여관에서 멀어져 갔다"는 이 동형 구조의 최종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사내의 자살이라는 파국적 사건 앞에서도 죄책감이나 두려움 같은 도주의 동기를 제시하지 않고, 다만 발걸음이라는 물리적 행위만으로 이 장면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4층위의 방어적 담화 전략과 제3층위의 환유적 서술 문체가 동형 구조를 이룬다는 사실은 곧 제2층위를 주관하는 내포 작가의 의도적 설계를 시사한다. 채트먼(Chatman, 한용환 역, 앞의 책, pp. 216~266)에 따르면, 내포 작가는 텍스트 전체를 조직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숨은 원리로 기능한다. 작품 속 인물들은 자신이 구사하는 전략을 명확하게 자각하지 못하며, 서술자 역시 자신의 서술이 그 전략을 반복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내포 작가는 바로 그 구조 자체를 텍스트 표면에 노출시킴으로써 독자에게 진실을 폭로한다. 즉, 제4층위의 소통 불가능성과 제3층위의 무감각한 서술이 동일한 방어논리, 즉 타자에 대한 극단적 외면을 공유하고 있음을 독자가 통찰하도록 텍스트를 배치하는 것, 이것이 이 소설에서 내포 작가의 메타적 담론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서울 1964년 겨울」은 1964년 서울의 자본주의적 폭력과 지식인의 무기력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무기력과 단절이 작동하는 '언어 구조 자체'를 화용론적 담화 파탄과 기호학적 환유 문체로 텍스트 내에 완벽하게 형상화함으로써 한국 현대 단편 소설의 미학적 가능성을 혁신적으로 확장하였다.

본 연구는 채트먼(Chatman, 앞의 책)의 서사 구조 이론을 거시적 틀로 삼고, 그라이스(Grice, 앞의 책)의 협력 원리, 고프만(Goffman, 앞의 책)의 체면 이론을 필두로 한 화용론적 분석 방법론과 야콥슨

(Jakobson, 앞의 책)의 기호학적 두 축을 결합하여 「서울, 1964년 겨울」의 인물 대화와 서술자의 진술을 분석하였다. 이는 이 작품의 내포작가가 어떤 방식으로 1960년대의 감수성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기도 하였다.

여러 학자들의 화용론적·기호학적 분석 이론을 교차 적용하여 인 물 발화와 서술자 묘사의 구조적 연관성을 분석한 본 연구는, 기존의 서사 문체 연구에 담화 분석 방법론을 도입한 사례로서 연구적 의의 를 지닌다. 다만, 이 연구는 단일 텍스트의 연구라는 한계를 지니므 로 향후 김승옥의 다른 작품군으로의 분석 대상을 확장하고 동시대 작가들의 소설과 비교 담화 분석하는 등의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 이다. 이 연구가 개진된다면 문학 텍스트의 문체 연구와 화용론적 담 화 분석 간의 융합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참고문헌

1.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 무진기행. 서울 : 더클래식, 2017.
2. 김명석. 김승옥 소설의 감수성과 일상성. 서울 : 푸른사상, 2004. 320 p.
3. 김태조. 김승옥 단편소설 연구 : 석사학위논문.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1. 89 p.
4. 김현. 구원의 문학과 개인주의 // 사회와 윤리. 서울 : 일지사, 1974. P. 383-402.
5. 김혜련. 〈서울, 1964년 겨울〉의 문체론적 분석 // 동악어문학. 1995. Vol. 30. P. 379-412.
6. 박진영. 1960년대 ‘문학주체’의 형성과 문체의 변화 //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2014. Vol. 15, No. 1. P. 167-186.
7. 서은혜. 김승옥 소설의 대화적 담론성과 정치적 (무)의식 // 현대소설연구. 2018. Vol. 70. P. 75-116.
8. 유종호. 감수성의 혁명 // 비순수의 선언. 서울 : 민음사, 1995. P. 424 - 430.
9. 이병현. 김승옥 소설의 문체 // 우리어문연구. 2009. Vol. 34. P. 461 - 500.
10. 장석원. 김승옥 소설의 문체 연구 // 어문론집. 2005. Vol. 52. P. 341 - 372.
11. 최인자. 김승옥 소설 문체의 사회시학적 연구 // 현대소설연구. 1999. Vol. 10. P. 359-378.
12. Brown P., Levinson S. C.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345 p.
13. Chatman S. 이야기와 담론: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 trans. by Han Yong-hwan. Seoul : Pureunsasang, 2006. 312 p.

14. Goffman E. On Face-Work: An Analysis of Ritual Elements in Social Interaction // Interaction Ritual: Essays on Face-to-Face Behavior. New York : Anchor Books, 1967. P. 5–45.

15. Grice H. P. Logic and Conversation // Syntax and Semantics. Vol. 3: Speech Acts / eds. P. Cole, J. L. Morgan. New York : Academic Press, 1975. P. 41–58.

16. Jakobson R. Two Aspects of Language and Two Types of Aphasic Disturbances // Fundamentals of Language / R. Jakobson, M. Halle. The Hague : Mouton, 1956. P. 55–82.

논문접수일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심사완료일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게재확정일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